“훈민정음 창제, 불교 범어 체계와 맞닿아”

통도사, ‘훈민정음 창제와 불교 영향’ 학술대회

10월 26일 경내 해장보각서 개최
성파 스님 “학문적인 협력을” 당부
이태승 교수 “범어 음성체계 영향”
이용 교수, 석독 전통 한글에 반영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라, 불교의 범어(梵語) 음성체계와 자비의 정신이 결합된 인류문화사의 결실임을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10월 26일 해장보각에서 ‘훈민정음 창제와 불교계의 영향－불교의 동진과 동아시아 문자발달’을 주제로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가 지닌 언어적·사상적 역할을 탐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태승 전 위덕대 교수는 ‘훈민정음 창제에 끼친 범어음성체계 연구－조선 시대 〈진언집〉의 범어 체계와 비교하여’라는 주제 발표에서 훈민정음 창제가 세종의 독창적 성과만이 아니라 불교계의 협력과 범어(산스크리트어) 음운 지식의 전승을 전제로 한 창제였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나는 제자 원리와 발성 원리는 범어의 음성체계와 매우 유사하다”며 “세종대왕은 창제 과정에서 불교 승려들의 조언을 받으며 범어의 문법적 구조와 발성 원리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글의 자음 분류법인 ‘아설순치후’의 체계는 범어의 자음 분류인 ‘아치설후순’의 순서를 변형한 것으로, 한글의 자모 구조가 범어의 문법 원리와 거의 동일한 발성 체계를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음과 자음의 결합 원리, 음절 단위 구성 방식, 종성 구조 역시 범어의 언어 규칙과 일치하며, 이는 세종이 범어의 체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범어 지식이 신미 대사(信眉大師, 1403~1480) 등 불교계 고승들을 통해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은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미 대사와 교류했으며, 이는 한글 창제에 불교계가 실질적으로 관여했음을 시사한다”며 “세종이 신미 대사에게 ‘혜각존자(慧覺尊者)’라는 법호를 내린 것은 그 신뢰와 협력 관계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10월 26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훈민정음 창제와 불교계의 영향—불교의 동진과 동아시아 문자발달’ 주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태승 전 위덕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아울러 그는 “한글의 기원을 범자의 글자 형태에서 찾으려는 기존의 ‘범자기원설’과 달리, 범어의 문법적·음운적 원리가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실질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범어의 문법 전통은 8세기 이래 불교계를 통해 동아시아에 전승돼 왔고, 조선 시대 〈진언집(眞言集)〉에서도 그 전통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이용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불교 전파와 한국 불경 석독 전통의 만남: 훈민정음 창제의 맥락’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훈민정음 창제의 큰 목적 중 하나는 불경을 바르게 독송하고, 백성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려와 조선 초기까지 이어진 불경 석독(釋讀)의 전통은 범어의 음절 구조와 독음법을 보존한 불교적 언어 실천이었으며, 이러한 불교의 음성문화가 훈민정음 창제의 언어학적 배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 “세종대왕은 백성들에게 경전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불교의 소리 해석법과 발음 구조를 체계화해 한글의 음운 원리에 반영했다”며 “훈민정음은 불교의 ‘소리를 통한 깨달음’이라는 수행적 전통이 문자로 구현된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훈민정음 창제는 유교적 통치 이념을 넘어, 불교의 자비 사상과 언어 해석학이 결합된 동아시아 지성사의 결정체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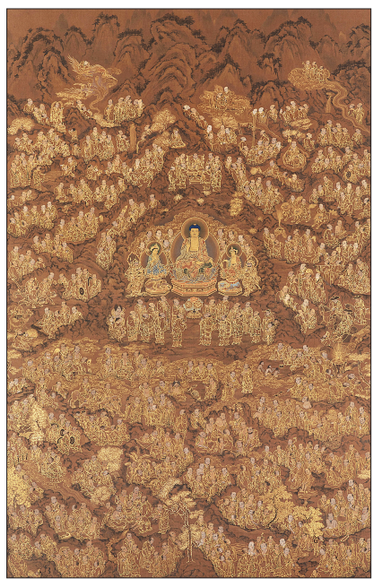
학술대회 종합토론에서는 신웅철 국립한밭대 교수와 조운성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해 불교학·언어학·음운학의 융합적 관점에서 훈민정음의 불교적 기원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불교가 한글 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학술 토론이 여러 차례 열렸지만, 이번 연구가 그중에서도 가장 근접한 성과라 생각한다”며 “학계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개회사에서 “종정예하께서 전통문화와 예술, 그리고 한글의 역사적 배경에 깊은 관심을 가져오셨기에 이번 학술대회가 더욱 뜻깊다”며 “통도사는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불교와 문자 문화의 관계를 밝히는 데 노력하고 있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불교문화가 우리말과 문자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태예술대전 대상에 예상희 ‘금니석가삼존오백나한도’

‘마이트레야의 울림’ 최우수상
사진공모 금상 조무권 씨 수상
12월 3~8일 전시회 및 시상식


제10회 천태예술공모대전 대상 수상작 예상희 씨의 ‘금니석가삼존오백나한도’.

제10회 천태예술공모대전 대상에 예상희 씨의 불화 작품 ‘금니석가삼존오백나한도’가 선정됐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전통불화, 현대불화, 조각 공예, 민화 분야에 총 140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10월 18일 심사를 진행해 대상과 최우수상 등 모두 76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이연욱(전통불화)·권지은(현대불화)·한봉석(조각공예)·정병밀(조각공예)·남정예(민화)·정희정(민화) 등 해당 분야 작가들이 엄정하게 진행했다.

심사 결과 대상에 예상희 씨의 불화 작품 ‘금니석가삼존오백나한도’가, 최우수상에 박인식 씨의 공예작품 ‘마이트레야의 울림’이 선정됐다.

각 부문별 우수상에는 전통불화 부문에 유현정 씨의 ‘지장시왕도’, 현대불화 부문에 김민주 씨의 ‘연못위의 물음’, 조각 공예 부문에 조용준 씨의 ‘안과 밖, 보살의 마음처럼’이 민화 부문에 김경은 씨의 ‘십장생병풍도’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회는 대상 작품으로 예상희 씨의 불화작품 ‘금니석가삼존오백나한도’를 선정하면서 “탄탄한 기본기와 치열한 작가정신을 바탕으로 고려불화의 전통을 구현하는 데 엄청난 공력을 들인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박인식 씨의 공예작품 ‘마이트레야의 울림’에 대해서도 “실용을 근간으로 하는 탁자에 상감기법으로 깊이 있는 불교의 정신을 표현해 냈으며, 미륵신앙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제7회 천태사진공모전 금상에 조무권 씨의 ‘울림’이 선정됐다. 은상에는 박재용 씨의 ‘삼운사의 봄’이, 동상에는 이명식 씨의 ‘대흥사 은하수’ 등이 각각 선정됐다.

올해 제7회 천태사진공모전에는 총 347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유우상·이병윤·김행조·장창근·유병용 등 사진예술계 중진 원로작가들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3점을 비롯해 가작 10점, 입선 55점이 선정됐다.

금상 수상작인 조무권 씨의 ‘울림’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불교의식의 숭고미를 포착한 작품이며 모든 중생이 이고득락에 들길 바라는 스님들의 간절한 염원이 잘 표현된 점이 돋보인다”고 평했다.

또 은상에 선정된 박재용 씨의 ‘삼운사의 봄’은 “불교의 이상인 조화와 원융의 표현이 적절하게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10회 천태예술공모전과 제7회 천태사진공모전의 수상작품들은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전시되며 전시 기간 중 시상식도 열린다.

신중일 기자

태고문화축제, 원융 법음으로 하나되다

제14회 태고문화축제 성료
10월 26일 일산문화광장서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0월 26일 일산문화광장에서 ‘제14회 태고문화축제’를 개최했다.〈사진〉

‘원융과 회통의 소리,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슬로건으로 열린 태고문화축제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호명 스님, 호법원장 구산 스님 등 종단 주요 기관장 스님들, 이도형 고양특례시장, 김도형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불교행사가 아니라 한국불교의 전통과 현대문화를 하나로 아우르는 원융의 축제”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예술과 음악, 그리고 문화로 피어나는 이 무대는 우리 사회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통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사암연합회장 호산 스님(봉선사 주지)은 “한국불교문화가 세계문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육부대중의 관심과 애정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모아 더욱 발전하는 불교문화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도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회통 정신을 이어받은 이번 태고문화축제가 종교와 세대를 넘어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제는 총 4부로 진행됐다. 제1부 식전행사에서는 태고종 연합합창단의 음성공양과 엄재원 신인가수의 공연이 있었으며 제2부는 법요식으로 치러졌다. 제3부는 영산재와 예수재를 시민들과 함께 시연했고 이어 제4부에서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상진 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자비의 쌀 2000kg을 고양시장에게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양주 석굴암, 미술관 개관…“문화도량으로 거듭”

11월 15일 ‘오봉미술관’ 개관식
개관기념 韓中작가 교류 초대전
도일 스님 · 왕옥륭 · 김창배 참여
‘용 휘호+자개’ 콜라보 대작 눈길



도일 스님의 작품 ‘비룡’

양주 석굴암(주지 도일 스님)이 미술관을 개관하고 문화도량으로 거듭난다.

양주 석굴암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오봉미술관’ 개관식을 개최한다. 개관을 기념해 ‘한·중 저명작가 미술교류 초대전’도 연다.

양주 석굴암 오봉미술관 개관에는 주지 도일 스님의 “문화도량으로 거듭나가겠다”는 원력을 바탕으로 한다.

도일 스님은 10월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도가 줄고 기존 신도들도 사찰을 찾지 않아 불심마저 약해지고 있다. 이를 타개하는 방법은 ‘문화’밖에 없다”면서 “미술관을 개관하는 이유도 양주 석굴암을 문화도량으로 변화·발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님은 경내 지장전을 리모델링해 미술관과 카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일 스님은 “최종적으로는 ‘차문화 도량’으로 가꾸는 것이 목표”라면서 “향후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관 기념 작가 초대전에는 도일 스님을 비롯해 선묵화·차묵화의 대가인 단원 김창배 화백, 중국 둔황석굴벽화 전문가 왕옥륭 작가가 참여한다.

여초 선생 등에게 서예를 사사한 도일 스님은 백제미술대전 사진 부문 특선, 서예 입선 등을 수상했으며 일본교토 국제교류회관 초대전, 우림화랑 미술관 초대전 등 다수의 전시회를 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108용(龍) 선서화로 전시회를 열어 화제가 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일 스님의 108용 선서화에 자개 명인 김맹길 작가가 자개를 새긴 작품 등 30여 점이 선보인다.

김창배 화백은 다성(茶聖) 초의 선사(1786~1866)의 동다송·다신전과 범해 각안 스님, 금명 보정 선사, 원감 국사 등 선사들의 어록을 수묵으로 표현한 작품 30여 점을 전시한다. 중국의 왕옥륭 작가는 둔황 막고굴의 관음벽화, 보살상 등을 재현한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도일 스님은 “이번 국제 교류전이 오봉미술관에서 펼쳐질 다양한 활동들이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AI시대, 불교상담이 묻는 ‘마음의 방향’

韓불교상담학회 추계대회
11월 15일 동국대WISE캠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1시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 501호에서 ‘현대사회와 불교상담: AI시대의 선명상과 교류분석’을 주제로 제23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AI와 명상의 접점, 불교상담의 실천적 확장 등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인간 마음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AI부디즘연구소장 보일 스님은 ‘AI와 명상’을 주제로 발표하며 박희승 조계종 총무원장 특별보좌관이 ‘조계종 선명상의 대중화와 실천’을, 허만세 계명대 교수가 ‘교류분석(TA) 성격적응이론을 통한 불교의 삼독 해석’을 각각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금강명상문화원이 주최하고 한국불교상담학회가 주관한다. 불교심리와 상담, 명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10-3465-7107 하성미 부산주재기자